



2008년 산림기본통계 조사 결과

2007년 말 현재 우리나라 나무 총량은 약 6억 2,440만^m로 작년 한 해 동안 9,800만^m가 자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 산림면적은 6,944ha가 감소한 638만 2,000ha 인 것으로 나타났다.

■ 지난 해 국내 산림 8톤 트럭 1,079만 대분 증가

우리나라는 지난 한 해 동안 8t 트럭 1,079만 대 분량인 9,800만^m의 임목이 자라 2007년 말 현재 나무의 총량이 약 6억 2,400만^m인 것으로 조사되었다. 이는 식목일 제정 원년인 1946년 5,644만^m에 비해 11배, 치산녹화 원년인 1973년의 7,447만^m보다는 8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.

이러한 축적의 증가는 우리나라 산림의 자원량이 증가함은 물론 임목의 이산화탄소 흡수·저장 능력이 증가되었음을 의미하여 앞으로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. (그림 1, 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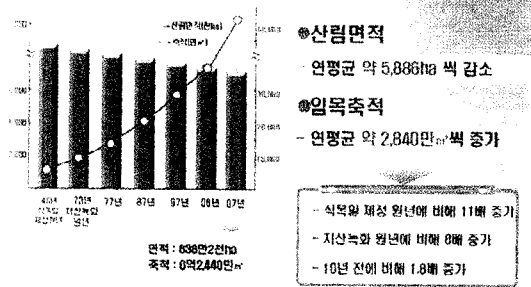


그림1. 2007년 말 우리 산림의 현황(최근 10년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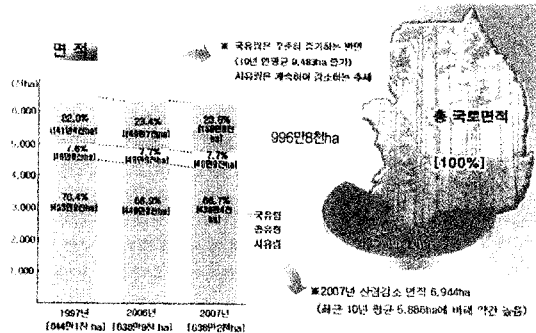


그림2. 소유별 산림면적 현황(최근 10년간)

■ ha당 임목축적 97.8m³

산림의 울창도를 나타내는 ha당 평균 임목축적은 2006년의 82.3m³보다 18.74(15.5) 증가된 97.8m³로 나타났다.

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치산녹화계획(1973~1987)등의 산림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치산녹화 계획 수립원년인 1973년도의 10.9m³ 대비 8.9배 증가되었다.

그러나 임업선진국인 일본의 57%(171m³), 독일의 31%(320m³), 뉴질랜드의 78%(125m³)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으로 산림자원육성 정책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머지않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.

■ 산림면적의 지속적 감소 전망

한편 지난 해 말 산림면적은 638만2천ha로 전년도(638만9천ha)에 비해 6,944ha(0.11%)가 감소하였다. 이는 신규 산림조성 등으로 775ha의 산림이 증가한 반면 대지, 도륙, 공장용지 등으로의 전용 6,813ha, 지적변동 등으로 906ha가 감소하여 총 6,944ha의 산림이 감소한 것이다.(그림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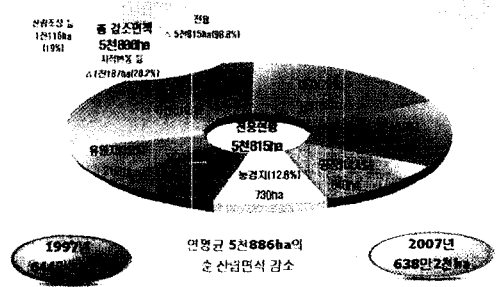


그림3. 산림면적 감소 현황(최근 10년 평균)

타 용도로 전용된 산림면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지조성, 1,161ha(17%), 진안군 용담호 수몰 등으로 유지(저수지)·구거(하천) 1,093ha(16%), 도로건설 879ha(13%), 공장용지(736ha(11%), 농경지 711ha(11%)순으로 나타났다.



향후 국민생활 향상과 사회기반 확충을 위해 토지이용수요 증가,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는 산림행정 지향, 이를 위한 규제완화 등으로 산림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.

■ 잠재력이 큰 미래의 국가자산

산림은 우리 인간에게 휴양, 맑은 물, 깨끗한 공기, 그리고 다양한 경제 자원 제공과 지구 온난화, 사막화 등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미래의 국가자산일 뿐만 아니라, 지구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.

또한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풍요로운 숲을 가꾸는 데 동참함은 물론 잠재력이 큰 국가자산인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.(그림, 4, 5, 6) **山林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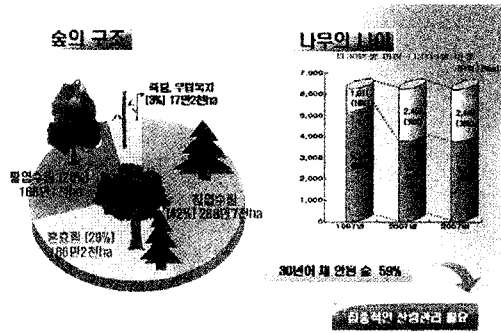


그림4. 숲 구조와 나무의 나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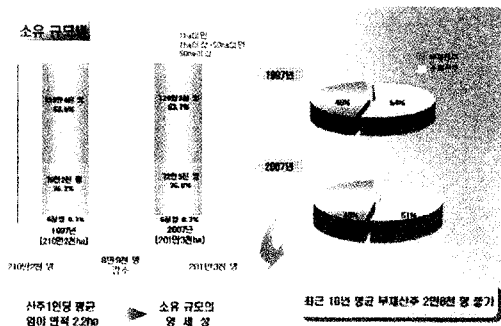


그림5. 우리나라 산주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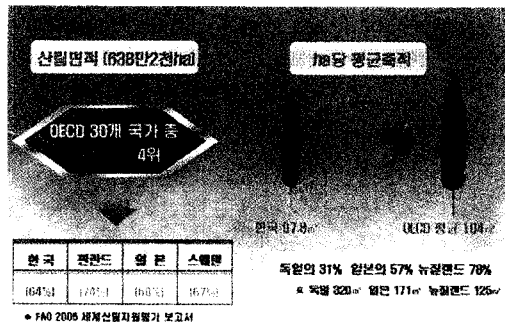


그림6. 선진 산림국가와 비교